

1. 教会에 革新을!
2. 社会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第32回定期總會가 終了

힘찬전도계속다짐 “女長老문제”역시否決

第32回定期總會가 10月12, 13兩日, 西成教會에서 開催되었다. 總代73名(牧師34名, 長老39名)이 出席한중에 개최된 總회에 來賓으로 文昌樓 목사(에장무교회), 박춘하 목사(강리교), 辛義卿 團長(韓國女性福音奉仕團)이 參預하여 出席하였다. 李處權 總務(在日本韓國YMCA)의 祝辭과 楊國中 團長(대비스목사, 안도신목사, 留學中인 崔忠植 목사, 金承俊 목사, 本國 강리교 감독, 金창영 목사로부터의 祝詞)이 讀되었다. 宣敎의 70주년을 向하여에는 楊國春 목사, 金昌業 長老, 權仁淑 婦人會會長, 吳榮一 全協總務의 발세등으로 新교70주년을 알리는 總회의 基本자세도 생각하였다.

定期總會는 權泰岳 副議長의 司會아래 開會禮拜로 시작되었다. 金元治 總會長은 “信仰의 共同体”(本國사도행전2장47)란 開會禮拜說教가운데서 “복음은 지금까지 작은 것에서 부터 시작하였으나 작은 것 하나를 위한 아픔이 우리에게 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田永福 牧師의 司式아래 聖餐禮典을 거행하고 開會禮拜를 마쳤다.

李處權 總務(本國 강리교소속, 現在 在日本韓國YMCA 총무)의 本國에 加入式이 있었다. 李處權 牧師는 關西韓國YMCA를 訪問하고, 지난 1月10日, YMCATotal로 就任하여, 青少年育성을 위하여 精力的으로 活躍하고 있으며 在日韓國人의 人材발달과 그양

李處權 목사
加入, 金顯
球 목사 按手

李處權 牧師(本國 강리교소속, 現在 在日本韓國YMCA 총무)의 本國에 加入式이 있었다. 李處權 牧師는 關西韓國YMCA를 訪問하고, 지난 1月10日, YMCATotal로 就任하여, 青少年育성을 위하여 精力的으로 活躍하고 있으며 在日韓國人의 人材발달과 그양

李處權 牧師(本國 강리교소속, 現在 在日本韓國YMCA 총무)의 本國에 加入式이 있었다. 李處權 牧師는 關西韓國YMCA를 訪問하고, 지난 1月10日, YMCATotal로 就任하여, 青少年育성을 위하여 精力的으로 活躍하고 있으며 在日韓國人의 人材발달과 그양



第32回 總會의 會場

“開拓전도에 全力” 採択된 新年度活動方針

傳道局

(1) 開拓傳道
佐世保傳道所, 四國傳道, 築港教會등에 本國교회도 부터 선교사의 파송을 요청하여 開

教育局

(1) 研修會
敎役者研修會, 長老研修會, 地方會別로 春期研修會를 實施한다.

社會局

(1) 厚生活動
敎役者의 社會保險加入을 적극 추진한다.

青年局

(1) 全國青年會를 強化
(2) 青年會員의 母國訪問을 實施

婦女局

(1) 各敎會婦人會組織強化
(2) 各地方會修養會 및 全國修養會에 局員이 參預하여 協力

金顯球 牧師에서 討論된 女長老, 女牧師, 長老將立件과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昨年度 總회에서 否決된 案件들이었다. 關西地方會에서 올라온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長年論 議論을 한후, 青年局은 34對12로, 婦女局은 34對11로 各各 可決되었다. 青年局과 婦女局이 復旧된 에 따라, 局長선출을 金顯球

金顯球 牧師에서 討論된 女長老, 女牧師, 長老將立件과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昨年度 總회에서 否決된 案件들이었다. 關西地方會에서 올라온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長年論 議論을 한후, 青年局은 34對12로, 婦女局은 34對11로 各各 可決되었다. 青年局과 婦女局이 復旧된 에 따라, 局長선출을 金顯球

金顯球 牧師에서 討論된 女長老, 女牧師, 長老將立件과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昨年度 總회에서 否決된 案件들이었다. 關西地方會에서 올라온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長年論 議論을 한후, 青年局은 34對12로, 婦女局은 34對11로 各各 可決되었다. 青年局과 婦女局이 復旧된 에 따라, 局長선출을 金顯球

金顯球 牧師에서 討論된 女長老, 女牧師, 長老將立件과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昨年度 總회에서 否決된 案件들이었다. 關西地方會에서 올라온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長年論 議論을 한후, 青年局은 34對12로, 婦女局은 34對11로 各各 可決되었다. 青年局과 婦女局이 復旧된 에 따라, 局長선출을 金顯球

青年局과 婦女局을 再設코 担当者選定

金顯球 牧師에서 討論된 女長老, 女牧師, 長老將立件과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昨年度 總회에서 否決된 案件들이었다. 關西地方會에서 올라온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長年論 議論을 한후, 青年局은 34對12로, 婦女局은 34對11로 各各 可決되었다. 青年局과 婦女局이 復旧된 에 따라, 局長선출을 金顯球

金顯球 牧師에서 討論된 女長老, 女牧師, 長老將立件과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昨年度 總회에서 否決된 案件들이었다. 關西地方會에서 올라온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長年論 議論을 한후, 青年局은 34對12로, 婦女局은 34對11로 各各 可決되었다. 青年局과 婦女局이 復旧된 에 따라, 局長선출을 金顯球

金顯球 牧師에서 討論된 女長老, 女牧師, 長老將立件과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昨年度 總회에서 否決된 案件들이었다. 關西地方會에서 올라온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長年論 議論을 한후, 青年局은 34對12로, 婦女局은 34對11로 各各 可決되었다. 青年局과 婦女局이 復旧된 에 따라, 局長선출을 金顯球

金顯球 牧師에서 討論된 女長老, 女牧師, 長老將立件과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昨年度 總회에서 否決된 案件들이었다. 關西地方會에서 올라온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長年論 議論을 한후, 青年局은 34對12로, 婦女局은 34對11로 各各 可決되었다. 青年局과 婦女局이 復旧된 에 따라, 局長선출을 金顯球

金顯球 牧師에서 討論된 女長老, 女牧師, 長老將立件과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昨年度 總회에서 否決된 案件들이었다. 關西地方會에서 올라온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長年論 議論을 한후, 青年局은 34對12로, 婦女局은 34對11로 各各 可決되었다. 青年局과 婦女局이 復旧된 에 따라, 局長선출을 金顯球

金顯球 牧師에서 討論된 女長老, 女牧師, 長老將立件과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昨年度 總회에서 否決된 案件들이었다. 關西地方會에서 올라온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長年論 議論을 한후, 青年局은 34對12로, 婦女局은 34對11로 各各 可決되었다. 青年局과 婦女局이 復旧된 에 따라, 局長선출을 金顯球

金顯球 牧師에서 討論된 女長老, 女牧師, 長老將立件과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昨年度 總회에서 否決된 案件들이었다. 關西地方會에서 올라온 青年局, 婦女局의 復旧件은 長年論 議論을 한후, 青年局은 34對12로, 婦女局은 34對11로 各各 可決되었다. 青年局과 婦女局이 復旧된 에 따라, 局長선출을 金顯球

憲法改正 案을 審議

憲法改定案이 審議되었는데 그 要點은 다음과 같다.
(1) 牧師 視務
委任牧師, 地方牧師, 宣敎師, 委任牧師, 臨時牧師, 副牧師, 地方牧師, 機關牧師, 元老牧師, 名譽牧師, 宣敎師로 改正審議한다.

議決된 各地 方會 獻議案

第32回定期總會에 獻議되어 議決된 案件은 다음과 같다.
(1) 長老將立要請件
① 堺教會 3名, ② 神戸東部教會 1名, ③ 布施教會 2名
(2) 人事局에 回附된 案件
① 岐阜教會에 敎役者를
② 佐世保傳道所에 女傳道師를

食品・藥品包裝業

加富利産業

代表者 金 漢 弼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25-12
電話 03(890)0951番(代)

尾頭センター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姜 南 中

名古屋市市中川区尾頭橋通2-16
電話 (052) 331-1222~3番
自宅 大阪市東成区東今里2-2-8
電話 (06) 976-4937番

三菱電機ストア

ヨブヤ電気武庫之莊店

代表者 李 清 孝

尼崎市南武庫ノ莊一丁目6-13
電話 06-436-8622
(スーパーマイショップ前)
宝塚店 宝塚市川面五丁目12-10
電話 0797-86-0305
(スーパーダイエー前)

（西宮教会牧師

바울 사도는 우에 배어있
으면사도 자유로운 디모데에
게 「기뻐하라, 담대하라, 전
도하라, 힘쓰라」라고 자족하
게할것을 물으셨읍니다.
이런 권면의 배경에는 최후
심판자가 누구시며, 부르신자
가 누구이며,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것을 예감하였기 때문
이었읍니다.
오늘날 우리 재일대한국도
교회에도 이와같은 신앙의 선
배들이 현존하고 있다고 한
다면 얼마나 큰일이 되겠습
니까?
우들은 바울사도가 믿음만
에 참아를될 디모데에게로
부쳤지만 그리스도 안의 믿
음으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
전체의 전권한 권자가 아
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아
니, 복히 교역자 된나 자신에게
직통으로 쓰이대는 충고인의
화답해 전입니다.
첫째, 너는 누구의 전도인
이나?
둘째, 너는 전도인의 사명
을 다하고있느냐?
셋째, 너는 상회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느냐?
네째, 너는 참전도인의 최
후목표를 알고 있느냐?
하마시 강하게 전후하고계
시는것 같읍니다.
①오늘날 우리는 누구의전
도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
우들은 그리스도의 전도인이라
고 대담하겠지요. 어떤개인
어떤 단체의 전도인이 아니
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를 기르시고 세우신 전도인
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부
활, 승천, 재림, 심판을 전하
는 전도인입니다. 또 그대로
로 절대 불변하는 전도인인
을 자작특목 되새겨주고 계
신것입니다.
②한대의 살고있는우리가
독자는 바울의 그 깊은심정
을 깨닫기위해 바울의 유중
으로 돌아가야만 볼것입니다.
바울선생은 천성인이냐는 죄
인의 피수보다 된전 1:15.
기독자는 죄책감이 크면 클
수록 충성하는 법입니다. 「죄
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베풀려 함이니」(롬 5:20) 때문입니다.
또 전도인은 그리스도의 군
사이니 모질한자를 기뻐하
기위해 멸망과 믿음을 지킴
아만 합니다. 현세의 고우들
은 멸망과 믿음의 반신반의
생활에 방종이 일어나 신
가 전도인은 자식애대하임
격하고 타인에 대하여는 관
용해야 되겠읍니다. 사명
을때 교회는 여지없이 세상
파도에 밀려가고 그참상은
인본가능입니다.
③이런 시절에 선 재일대
한국교회회는 상회대한
리한 지혜가 요구되는 것입
니다. 어느 시대나 반기독
적기독, 니콜라당은 참존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재일대한국
교회회의것을 명심해야 된
다. 이름은 부활을 표시한
다. 어떤이들은 「재일」에
해서 「대한」을 맛작하기 쉽
고, 또 어떤이들은 「재일대
한」에 붙여서 「기독교회」
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
여 발뺌하고있지는 않느냐
철히 반성할 시기라고 생각
됩니다. 「재일대한국교회」란
순수한 양방이 되어야만 하
나딘이 기뻐하실것입니다. 이
를위해서 주 예수는 나와여
러분들 부르셨읍니다. 재일대
한국교회회의 구원을 체험하
야만 되며, 이것을 六五만의
내 뢰움에게 대를 얻는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
하고 계십니다. 양방이 귀하
지만 발전적, 반미적, 반동
이 없는 반나무에서 자랄수없
는 이치로 잘알고 있읍니다.
④전도인의 최종목표는 관
체의 부흥(순교)이 되는것
입니다. 이것은 전도인이면누
구나 짚는 길입니다. 전도인
은 자신을 위해 근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법입니다. 순교
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사람 한
사람이 전도인, 기독교자의 사
명을 와수함때 우리 재일대
한국교회회는 주 예수께서
장 사립만는 교회가 될수있
을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 이때까지 經濟的支援關係
 賴하는 듯한 感이 없지않음을
 反省하면서 우리 總會의 人
 材養成을 위한 協力을 主要
 請하고 있으며, 또한 집사
 增加되는 韓國移民으로 만
 안은 캐나다 및 美國教會의
 實際의 苦惱를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共同的 宣敎의 課
 題도 研究하여 애쓰고 있다.
 특히 우리와 50年의 歷史의
 宣敎關係를 갖고있는 PCC
 (캐나다長老教會)에 있어서는
 初期의 父子關係가 兄弟姊妹
 의 關係로 形成되어 있는
 故에 財政協助, 人材養成 및
 交流뿐만 아니라 宣敎의 諸
 問題를 서로 반응하여 나감
 을 굳게 다짐하였다.

CCA(重細基督敎協議會)
 에는 思想的으로 政治的으로
 變化하는 重細의 여러
 나라도의 苦惱를 위하여 우
 리도 重細의 敎會로서 무
 었을 어떻게 할까 하는 點
 을 생각하게 된다. 卽 이때
 까지 우리 敎회는 여러면에
 서 받은 敎會의 자리에 있었
 으나 이제부터는 우리보다더
 어려운 敎會를 위해 무엇인
 가를 주는 敎會로 發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뭐니해도 우
 리는 骨肉의 兄弟인 우리民
 族과 敎會와의 連關에 대해
 反省하지 않을수 없다. 國家安
 保를 優先하지 않으면 참된
 平和와 民族의 生存이 없는
 이悲劇의 狀況속에 있는우
 리 祖國敎會의 苦惱를 또한
 온전히 우리의것으로 할수없
 는 位置이지만 우리는 보다
 넓고 깊은 角度에서 祖國을
 위하여 기도를 모으며 그 平
 和와 統一을 念願해 온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
 処해있는 歷史的 位置가 다르
 다 해도 우리 基督者는 그
 리스도의 苦難에 함께 同參
 하는 가운데서 모든 苦惱의
 核은 같은 苦痛으로 連結되
 어지는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오늘날의 祖國의 試練은 우리
 의 것이요, 世界敎會의 아픔
 또한 우리의 아픔이요, 더우
 기 在日65萬同胞의 苦恨이完
 全히 우리 것이 되어있때,
 오늘날의 宣敎가 達成되어지는
 것이나 하겠다.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八千代通3丁目11番地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 話 052 (682) 1177 (代)

自 宅 名古屋市千種区猪高町猪子石原字太田
電 話 052 (771) 5952

第27回関東地方会開催

9月23日、東京教会서



第27回関東地方会定期大会

第27回定期関東地方会が、9月23日、東京教会에서 代議員 31名이 出席하고 來賓 多数자 参加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第一部는 李永欽副会長の司會 아래 地方会長 孟哲輝목사가 「기독자의 민족과 그 앞날」(신명기 7:7, 욕기 1:4)이란 제목으로 민족이란 완전하고 永久히 存在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政治적인 立場에서가 아니라 民族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 하여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第二部는 孟哲輝地方会長の司會로 진행되어 來賓으로, 캐나다에서 파견받은 위례 스선교사夫妻와 오관석 목사(新宿教会), 李旭權 Y M C A 총

무를 소개하고 각각 祝辭를 받았다. 青年会全國協議會代表 委員金成元氏, 關東地方青年會 連合會長李相賢氏, 關東地方婦人會會長韓鳳愛氏도 각각 소개 하였다.

금년은 任職選擧는 없었고 東京教会, 川崎教会 婦人會에서 獻議된 女長老후보를 둘러싸고 長時間 논의가 있 었으나 그대로 上로하게 되 었다. 關東地方會는 代議員의 改選비용을 15人당 1人으로 하 여왔으나 來年부터는 總회憲 法第40조에 準하여 實施하기 로 결의하였다.

來回場所를 橫濱教会로 결 정하고 閉會에에는 朴米雄강 도사가 설교하였다.

記念大會를 開催

西南地方宣教50周年에

西南地方宣教50주년 기념大會 (大會長 金得三牧師)가 9월 26日, 折尾教会에서 西南地方의 信徒, 駐福岡 韓院 院長等이 宗회대통령이 참석 한 가운데 성대히 行해되었 다.

主題「그리스도의 증인 어제 오늘, 내일」아래 大會長 金得三牧師의 司會로 진행되었 으며 大會總務 崔昌華牧師의 地方會略史, 總會長 金元治牧師의 設教, 牧職 經緯 30년 표창(李先祥長老, 崔永模長老, 李宗賢長老)이 있은후, 崔昌華 총무, 韓院院長等, 初代地方會會長 이종현牧師의 축사가 있었다.



西南地方宣教50주년 記念 宣敎大會

西南地方宣敎의 시작은 一九二三年에 九州地域에 開拓 伝道가 시작되어 一九二七年에는 福岡教会, 小倉教会, 八幡教会, 二八년에는 下関教会 가 設立되어 一九二八年度九

特殊な状況による文書の記録である(男と女の序列(地位)に 関するユダヤ教的まがいはいは、より深い霊的洞察により再解 釈されねばなりません。また、 わたしたちの生活習慣になっ ている儒教的偏見は、より福音 的な生き方によってなおされる べきだと信じます。ただ、主にあ つては、すべての人は平等なの であります。(主にあつては、 男なしには女はないし、女なし には男はない。1コリント11: 11)

日本にあつてのわたしたちの 教団の使命は、一九七三年十月 十日に出された宣敎基本政策に、 (この世界と全人類のために、 十字架の苦難を甘受したもうた 主イエスのみあとに従うことに より、自己保存的・自己中心的 教会主義を克服しつつ、復活の 主の力を身におび、つかわれ た場へとかけて参っていく)と書 かれていており、わたしたち も信じるものであります。同じ 總會に属するものとして、聖 霊を受けた信者は男性であれ女性 であれ、上の召命に呼ばれてお ります。これに忠えたいとし たら、聖霊を悲しまずすること になり ます。したがって、同じ宣 敎基本政策の「基本的課題」の 中間に、救いの現実とは、民族 の「生」における全領域が、こ うした抑圧から解放されること と記されているとおり、わたし たちも信じるがゆえに、まず、 女性が本總會内において抑圧か ら解放された存在として生きる ことが急務であると信じるもの であります。

婦人会全国大会 개최 金主日新會長을 選出



金主日 婦人會全國連合會會長

한 一年間 活動해온 婦人會全國連合會는 憲章修正, 總會에 女長老將立要請, 財産問題에關한 件들을 처리하고 閉會하 였다.

新任職員 및 要望書는 다음 과 같다.

會 長 金主日 (大坂)
副會長 吳仙妣 (大坂)
書記 權仁淑 (名古屋)

強調하는 "女性의 힘"

新任된 金主日會長

인터뷰에 宗會의 副會長인 하다가도 「女性의 힘」을 강조 할 때는 婦人會를 키워온정 會長의 重責을 맡게된 金主

日女史는 婦人會를 結成하고 오늘까지 만들어오다가 이제 會長의 職責을 맡게되었다. 「몸도 약하여 婦人會의 제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생각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命 음이시니 알았고 순종하는 마 음으로 받았다」고 겸손히말 하면서 「젊은 세대가 한차례 일할수 있도록 앞장서서 길 을 따라 나아가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一九七八年度에는 總회의 宣 敎70周年과 동시에 婦人會全 國連合會도 30周年을 맞이하 게 되므로, 女長老 第一 호가 나와 宣敎事業에 더이 바지하고 싶다고 이번 總회 에 기대하는바가 있으나 女 長老의 將立件은 男性의 손

아래있어 금년도 卒소의 차 로 否決되어 新任會長的의 기 대에 어긋나게 되었다.

그러나 婦人會는 發展路를 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있 으며, 新任會長的의 임에서는 「女 性의 積極向上」(後繼者養成) 에, 주력하여 世界教會와어 개를 같이 할수 있게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金會長은 婦人會의 결정때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기 로 13년 부회장으로 15년간 務하여 오다가 금년에 會 長의 자리에 앉게되었다.

肉身의 苦痛을 덜어주는 看護婦의 職業에 종사하면서 大 阪교회집사, 婦人會會長으로서 봉 사하고, 婦人會全國連合會會長 의 職까지 맡게되었다.

要 望 書

本總會の上に神の祝福が豊に あらんことを祈ります。

わたしたちが信じる神は、わ たしたちに独り子イエスキリス トをたまわった愛と慈悲の神で あります。(ユダヤ人もギリシ ャ人もなく、奴隷も自由人もな く、男も女もない。あなたがた は皆、キリスト・イエスにあつ て一つだからである。ガラテヤ 3:28)と、神は聖書を通して

知らせてくださいました。わた したち女性も、みなさまで男性と 同じ救いに完全にあずかってお り、みなさまで男性たちと同じ に主に仕える者であることを、 信じて告白するものであります。 ゆえに、万人の主であるキリス トが、わたしたちの在日大韓基 督教總會を支配しているのであ るならば、聖書のいくつかの個 所に現われている(その当時の

關東婦人 連道例會

關東地方婦人連合會が、9月 22日、橫濱教会에서 열렸 다.

關東地方七支會代議員 18名 이 出席하여 一九七五年度の 活動報告 및 決算報告를 받고 다음과 같은 新任職員을 中

心으로 婦人會運動을 적극적 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會 長 韓鳳愛
副會長 吉英來
書記 朴貞子
副書記 金慶子
會計 韓福女
副會計 裴基善
宣敎部長 劉命主
教育部長 李南用
社會部長 尹順鳳
青年部長 具任伊

ドライ専門

朝日鑄工株式会社

社長 平山浩造

堺市 鳳東二
電話 0722(71)1561

豊川クリーニング商会

代表者 完山 禎 (崔永峻)

大阪市大淀区本庄中通3-36
電話 06(372)5755

高級婦人服製造卸

OK 商 会

金 京 秋

本町店 大阪市東区船場中央4丁目1番地
船場センタービル8号館2F 281号
電話 大阪(06) 251-5444番
自 宅大阪市東区東小橋3-4-12
電話 大阪(06) 981-2980番
974-7715番

青年会全協中央委員会

一、金哲顯神學生の苦難を同じ境遇の中で育つた者として、自分の生活、生き方、信仰生活の中で問いつめ、共にその苦難を担ってくださるるように

一、この事件を通して全協にスバイがいる等の誹傍中傷が教会の内外から出てきています。これらの中傷を強くしりぞけ、私たちは固く信仰に立ち、同じくイエスを告白する者として、全協の宣教の業を共に担って下さるるようにな

なお、新中央委員は次のとおりである。

代表委員 金成元（西新井）

總務	興榮一	大阪
書記	李相兌	橫濱
書	金惠榮	大阪
涉外	檜燦秀	京都
研究	姜泰洙	京都
〃	金性濟	調布
〃	曹督戸	川崎
伝道事業	崔白雲	福岡
〃	孫東輝	岐阜
出版	李恩子	大阪
〃	裴宣惠	東京
財政	金広照	横浜
〃	金正男	大阪
會計監査	高光重	大阪
〃	金明元	布施

기독교 교회와의 지교회로서는 처음으로 다행본 형식의 역사서가 뒷걸음으로 안다. 동교회는 제반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성전 대수리도 개회하고 있는바, 성전수리는 내년 초 착수할 준비라 하며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 10월 6일에는 간소한 기념예배를 드리고 건설사업의 완성된 내년도에는 대외적인 기념사업을 가지리라 한다.

京都교회는 교회의 공신기록(제교회록 기타)이 남아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여 금년 50주년일것으로 계산하

京都教会、50周年記念事業を推進

た。その中で、①金哲鉞神学生事件は、本国における教会闘争（民主化闘争）と在日韓国教会（主要には全協）の宣教活動に對する重大な当局の干渉を招いた。②その意味で金神学生救出の運動は教会の宣教の自由を守る闘いであり、この運動を通して教会の宣教の姿勢を問わねばならない。③「金神学生事件」や、民族教育に熱心ではなかったことを指摘しながら、①南

당 년(金平)	50년사	관 전	당 진	하의	(위)한양	3년전부터	주년을	京都교회는
8월 2일	편찬을	신록, 심전대수리,	교육관 건축, 목사	5대기년사업(九條에배	양정건축공사(를 조직	기념사업 위원회	맞이하게 되는대, 약	금년의 창립 50
	추진하여오							
	九條에배							

공하여 오는 10월말에 완공하여
단계에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목사관(3층 총 62평, 1층은
주차장)을 기공하여, 금년내로
완공하게 되며, 또 지난 9월에는
교육관(총 2백50평, 4층)을 착공하여,
현재 활발한 3대 건설사업에
진행중에 있다.

의 영향을 받으며 오던 학생사 보
전면 개국 계획에
日本과 모조와 동교회회를
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앞으로 보육사업을
여시도 더 활발한 민족교
개회한것이라 한다.
또한 동교회 50년사
진행중인 것으로 알

敬老行事
도개최
京都교회
로행사를 개최하여 매년 9월 경
상된 노인들을 위로하며 70세 이
지운 경로 행사를 가지는다
금년에 9월 23일, 京

敬老行事
도개최

京都교회

의 힘모아
築獻堂式거행

金哲顯君救
命에全力을
다하기로

金首領書
上
9月4日

洪 東 根

分け合って下さいました。そしてキリストの中にある真の愛と慰めとを施して下さいました。私と私の全家族とは、心から深い感謝を捧げる次第であります。今朝は有名なダビデ王の詩篇の話を考えながら、お互いにお慰められ、恵みを分かちあいたいと思います。私は特に過ぎ去った悲しみの日々に於て、この言葉によって与えられた力と慰めとを、私の家族の体験に照らして証しをしようと思います。

詩篇第23篇は、ダビデ王がまだ羊飼いであった時、又は彼が後日、羊飼いであった時を回想しながら詠んだ詩ではないかと思ひます。これ以上平和な牧歌はないと思ひます。主エホバは我牧者であり、私はその子羊、それ故にこの悲しみと苦しみとの多い世界でも、私には乏しい

ことがなく緑の牧場といこいの
みきわがある平和な牧場である
というのです。

人間は罪多くして、その人生
は悲しいものであります。それ
故に我らには何か超越的なもの
が必要であります。詩人にはそ
れぞれ、エホバの神、即ちこの
罪と悲しみの人生を贖って真の
生命と平和を与えて下さる主で
あったのであります。

そこで、彼は続けて「たとえ
私は死の陰の谷を歩むともわざ
わいを恐れません。あなたがわ
たしと共におられるからです」
と歌ったのであります。

過ぎ去った二ヶ月の間、私と
私の家族とは本当に死の陰の谷
を歩んでおりました。愛する妻
が頭と咽喉が耐えられない程痛
いので入院したのは5月28日
でありました。夕方早く大学病院

の応急室に入院しましたら、直ちに医者達の診断が始まりました。五名の医者が前後して、夜を明かして検査をしました。朝になって医者の一人が、私一人を別と呼んで話してくれました。「あなたの奥さんは85%は脳腫瘍であるらしいのです。非常に危険です」というのでした。これは、青天の霹靂ともいふべきものでありました。その瞬間目の前が暗闇のように感ぜられました。不安と疑惑の中にいた妻を数言慰めて帰って来る時に私の面の頬からは涙がとめどもなく流れました。

それから14日間、継続する数々の検査の後に、ついに脳腫瘍うだという最後の宣言を受けたのであります。私の魂の前に暗い帳が降りてくるような暗黒と絶望を感じました。この時より

朝早くから生命が洩れて、ハリーウッドの高速道路が我々には、涙と悲しみのハイウェイ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一人一人について語ってくれました。アリスは、エリザベト・キープロウスの「死の死ぬ」ということに関して」という本を紹介し、さいました。妻の為にこれを読むようにと私に勧めてくれました。

それから我々には、死と歩む人生が始まったのであります。それは一年が千年のようです。長い／＼日でありました。

「回顧してみると、この一時間の中で我々は本當の時間のことを恵みとして体験しています。詩人ロバート・ラウニング・ハミルトンは、時の中で、このようによみ

私は快樂と共に一マイルを歩んだ。
彼女は終日小言を言った。
しかしその多くの言葉にもかかわらず
私は何ら知恵を得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
私は悲しみと共に一マイルを歩んだ。
ああしかし、彼女の悲しみが私と共に歩んだ時
私は何と多くのことを得たのであろう。

涙と祈りのかいもなく妻はついに七月二十日地上での最後の息をひきとつて天に昇ってゆきました。丁度、病床に横になつて満二ヶ月の短い期間でありました。

(前京都教会牧師)

40余信
折尾教会堂

折尾教会堂의 獻堂式이 지난 9月 26日, 西南地方宣敎50주년 기념식에 이어 성대히 행되었다.

金형植牧師의 司會, 李仁夏牧師의 「회장을 널리라」란 說敎가 있은후 建築委員長 吳鳳錫長老로부터 建築報告가 있었다. 地方會를 代表하여 金得三牧師의 축사, 申鉉錫牧師의 勸導가 있었고, 崔昌華牧師의 祝禱로 獻堂式을 마쳤다.

折尾教会는 一九六九年 敎會堂建築委員會를 組織하여 信

다. 지금까지 우리 총회에서 탄원서를 보내며 활동하여와 으나 앞으로도 이를 추진하여와 기 위하여 활동費 百萬元을 모 금하기로 결정하였다.

閉會에배時에 獻金이 六四、一八〇圓이었으며 韓國女 性福音奉仕団의 代表가 韓貨로 10萬元을 기부하여 총인원들에게 큰감명을 주었다.

NHK에抗議

崔昌華牧師

崔昌華牧師의 NHK에對する人格權裁判に關して、去る9月22日、金君植牧師、李仁夏牧師、崔京植牧師、姜榮一牧師、裴重度RAIK主事、山口明子NCC主事が、NHKを訪ね、韓國人の名前を正しく呼ぶよう強く要望した。

有限会社 コノミプロセス

東京都荒川区荒川三丁目25番1号
銀映ビル
電話 03(801)5936・(807)3473

三信商事株式会社

不動産部 千葉県船橋市前原西1-25-18
電話 0474 (76) 6181~2番
レストラン部 千葉県八千代市米本1448-1
電話 0474 (88) 5579・1613番

製鋼原料・製紙原料・非鉄金属・諸機械其の他

本山商店

堺店 堺市西湊町2-115
電話 0722 (41) 2144 番
美原店 南河内郡美原町大保 213-1
電話 0723 (62) 3315 番